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유 성 경

임 영 선[†]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기혼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변화 패턴이 어떠한지, 그리고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ies)의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총 4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자료 중에서 결혼을 하고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1,862명을 대상으로 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으로 그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고, 초기치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감소속도가 빨랐다. 둘째,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였고, 초기치 일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만족도 상승속도는 느리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혼직장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기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일만족도의 초기치 점수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만족도의 상승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넷째,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결혼만족도 변화, 일만족도 변화,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일-가정 양립

[†] 교신저자 : 임영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Tel : 02-3277-4144, E-mail : 79yslim@gmail.com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율 조사가 처음 집계된 2011년 6월 1,162만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7만 가구로 43.6%를 기록했고(통계청, 2011), 2015년 10월에는 유배우가구(1,185만 8천) 중 맞벌이 가구는 520만 6천 가구, 43.9%로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의 가구가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6). 그렇다면 한국에서 맞벌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국내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을 대상으로 나성은(2014)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내 젠더 위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맞벌이 남성들은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고수하면서 '좋은 아버지'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간극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한적인 양육에만 참여해도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아버지 양육을 개인의 신념이나 선택의 문제로 축소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짚어주었다. 한편,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2014)은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기혼직장여성들이 엄마 역할을 단순히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 정도로서가 아니라, 존재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워킹맘들은 아이의 성격, 정서, 학업 성적을 관리하는 것을 엄마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했고, 엄마 역할을 게을리

할 경우 '치명적인 실패'라는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워킹맘들은 일터에서는 엄마와 여성이라는 편견과 싸우며 일하고 있었고, 가정과 일 사이에서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마다 각자의 고유한 방법을 선택해가며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세계의 긴장 속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것은 부부 모두에게 쉽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집중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혼직장여성은 일과 가정에서 공평하지 못한 역할분담과 취업모를 평가하는 이중잣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양소남, 신창식, 2011), 엄마와 아내 그리고 직장인이라는 다중역할 사이에서 직장과 가사일, 자녀양육의 이중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령, 2011). 실제로 가정과 일을 양립해갈 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가영희, 2006; 장재운, 김혜숙, 2003).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적고(Greenberg & O'Neil, 1993), 남성보다 역할갈등과 과부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Behrman, 1982). 이처럼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겪는 갈등이 크다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했지만(박혜경, 2009; 이주일, 유경, 2010; 장재운, 김혜숙, 2003),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그 경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물(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4)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연구가 횡단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정과 일에서 기혼 직장여성들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혼 직장여성들이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변화패턴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종단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결혼 생활은 배우자간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정서적 관계로 인식되면서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김민녀, 채규만, 2006). 대개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그 기대수준과 기대영역은 개인의 삶의 경험과 현재 발달단계 또는 가족생활주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여봉, 2010). 즉, 결혼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이다(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박병선, 배성우, 2011; Lavner & Bradbury, 2010). 하지만 이런 사실은 간과된 채,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내적·심리적 요인, 대인간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04). 먼저, 개인내적·심리적 요인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격, 가치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애착정도, 내적 통제감 수준, 행복한 아동기의 경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덕일, 1996; 김임용, 1994; 김희진, 2004; 이은주, 1993; 이종숙, 1988; 이호신, 2000; 임영란, 1991; 최지희, 1984; Kelly & Conley, 1987). 둘째, 대인간 요인에서는 의사소통, 문제해결방식, 역할 분담 등

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고현선, 1995; 김미정, 2001; 김정옥, 1987; 김희진, 2004; 이상숙, 1989; 이정우, 1989; 송성자, 1995; 송시내, 1999; Brandbury & Rincham, 1988; O'Donohue & Crouch, 1996; Lewis & Spaniner, 1979). 셋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 소득수준, 종교 등이 있다(김미숙, 1989; 김희진, 2004; 서동인, 1985; 송말희, 이정우, 1986; 이호신, 2000; 정현숙, 1996; 전춘애, 박성연, 1993; 최영아, 1988; Gilford, 1986; Lewis & Spaniner, 1979; Scanzoni, 1975).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시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된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현실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변화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많은 연구들은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러 학자들은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U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Atchley, 1992; Berry & Williams, 1987; Rollins & Canon, 1974; Story, Berg, Smith, Beveridge, Henry & Pearce, 2007). 즉, 결혼 초 적응기에 만족도가 높다가 자녀가 태어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할 때, 다시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견해이다. 한편, 결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하강 변화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Blood & Wolfe, 1960; 김민녀, 채규만, 2006 재인용; 박병선, 배성우, 2011). 즉, 결혼초기에 결혼만족

도가 가장 높고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여 중년기에는 가장 낮아진 상태로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견해이다. 유명주(1993)는 결혼만족도 변화에 대한 남녀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여자는 결혼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고, 남성은 시간이 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결혼만족도의 중단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국내에서도 중단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지혜, 장연진, 김희주(2013)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사분담만족도와 여가생활공유가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하지만, 세 시점(2007년, 2008년, 2010년)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다소 주관적인 방법으로 유형화하여 결혼만족도의 상위유지형, 중간이하유지형, 상승형, 하강형, 혼합형으로 분류한 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한편, 박병선, 배성우(2011)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결혼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결혼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확인한 것은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박병선, 배성우(2011)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무성장모형과 선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고, 무성장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 모형을 선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둘째, 변화 패턴을 비교하는 모형비교에서 이차함수변화모형 비교를 하지 않아, 다른 형태의 곡선 변화를 보이는데 대한 검증이 빠져 있다. 셋째, 기혼여성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밝히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일만족도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

일만족도는 개인의 직무 또는 전반적인 직장생활을 평가하면서 느끼는 즐겁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되는 것으로(Locke, 1976), 주로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Cotton & Tuttle, 1986; Iverson & Curriivan, 2003). 따라서 조직에서는 노동자의 이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줄이고자 일 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마련을 위해서 일만족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기혼여성의 일만족도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두 가지 주제,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김희수, 김옥희, 2009; 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O'Farrell & Harlan, 1982)와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연구(Griffeth, Hom, & Gaertner, 2000)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먼저, 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에서는 크게 개인가족요인(조희금, 1999; 홍성

회, 2000)과 근로특성요인이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방하남, 2000; 정영금, 2006; 최성일, 유계숙, 2007). 개인가축요인 중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역할태도와(김주현, 문영주, 2010; Ecke & Trautner, 2000) 건강(김용희, 제미경, 1987; Andrisani, 1978), 남편의 지지(Bures, Henderson, Mayfield, Mayfield, & Worley, 1996)로 나타났다.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특성요인은 주로 근로소득과 근로복지를 중심으로 가정과 일, 일과 가정의 갈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에서 일만족도 변인이 사용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한 연구주제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것이다. 즉,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이 심해지자 여성의 경력단절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 연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를 살펴본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일만족도에 관심을 갖고 진행된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된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와 경력단절의 이유(권순원, 이영지, 2010), 경력단절 여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손강숙, 주영아, 2014)과 진로장벽에 대한 조사(이희정, 김금미, 2010), 그들의 재취업욕구(김선화, 2010; 하애란, 2010)와 교육(김영경, 2007; 이영민, 박가열, 박경연, 임정연, 2013),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방향(김경례, 2014; 박재규, 2010;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정철영, 김재호, 이성식, 한승완, 조단비, 2009)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는 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조사

되거나 여성의 경력단절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파악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기혼직장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 만족도 변화가 어떤지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최근 일만족도는 종단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Chen, Ployhart, Thomas, Anderson, & Bliese, 2011). 왜냐하면 일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성별이나 학력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개인의 경험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노연경, 홍세희, 이현정, 2011; Chen et al, 2011). 따라서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예측변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만족도의 개괄적인 변화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개인 및 가족 발달단계와 관련성이 높은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여봉, 2010). 연령과 결혼기간은 상관이 높아 서로 대체하는 변수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여봉, 2010). 하지만, 연령은 개인의 발달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생애발달단계 효과와 출생집단 효과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반면, 결혼기간은 가족발달단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서로 구분되고 있다(이여봉, 2010). 또한, 연령대별로 결혼만족도와 이를 설명하는 변수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이재경, 이은아,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를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연령과

결혼기간을 투입하여 기혼직장여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의 변화패턴을 살펴보려고 한다.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일-가족 상호관련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유성경, 한영주, 조윤진, 2011).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족을 갈등 관계로 보는 것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 정신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한 개인이 한정된 자원을 두 영역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영역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관점이다(Edward & Rothbard, 2000). 반면, '일-가족 향상'은 일과 가족을 상호 향상시키는 관계로 보는 것으로 한 개인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영역에서 얻은 만족과 기쁨은 다른 영역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이다(강혜련, 윤미자, 2004; Barnett & Hyde, 2001; Grzywacz & Marks, 2000; Greenhaus & Powell, 2006).

일-가족 갈등과 향상 관련 연구에서 초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갈등의 감소는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Greenhaus와 Powell(2006)은 두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가족과 일 사이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에서 가족, 가족에서 일로의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rone, Russell, & Cooper, 1992a). 뿐만 아니라, 일-가족 병행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Rothbard, 2001), 일-가족 갈등과 향상은 독립적인 구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다중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얻게 되는 향상효과가 항상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Frone, 2003; Grzywacz & Bass, 2003; Grzywacz & Marks, 2000; O'Driscoll, Ilgen, & Hildreth, 1992). 이상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가족 간의 상호영향력을 직접 분석하기 보다는 일-가족 갈등 및 일-가족 향상 변인을 구성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외의 연구에서 직업 특성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을 통합하는 능력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밝혀지면서(Greenhaus & Powell, 2006), 조직들은 근로자에게 좋은 근로환경과 긍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Demerouti (2012)는 한 사람의 일에서의 자원이 그 사람의 긍정적 정서나 에너지 수준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영역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에너지 수준까지도 향상시키는 교차전이 일어남을 확인했고 그 경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장기적으로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성립해야만 연구 결과가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가정을 검증한 연구가 없다. 또한, 일반족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기 쉬운 변수이고(노연경, 홍세희, 이현정, 2011; Chen et al, 2011) 그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력도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동일한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혼직장여성들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ies)로, 이 자료는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9,068가구(도서지역 제외,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이다. 조사주기는 1차년도(2007년)와 2차년도(2008년) 조사는 1년 주기, 이후부터는 격년마다 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3차년도는 2010년, 4차년도는 2012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자료 중에서 결혼을 한 후, 동일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1,862명을 선택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1차년도

표 1. 연구대상자의 1차년도 연령과 결혼기간 (N=1,862명)

특성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연령	20대	36	1.93
	30대	421	22.61
	40대	621	33.35
	50대	581	31.20
	60대	203	10.90
	무응답	4	0.22
결혼 기간	5년 이하	91	4.89
	5년 초과 - 10년 이하	190	10.20
	10년 초과 - 20년 이하	525	28.20
	20년 초과 - 30년 이하	506	27.18
	30년 초과 - 40년 이하	451	24.22
	40년 초과 - 40년 이하	95	5.10

연령과 결혼기간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1문항 “전체적으로 보아 요즘 결혼 생활에 대한 _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주세요.” 로 측정되었다.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는 7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불행하다, 7점-매우 행복하다)로, 4차 년도에는 10점 척도로 되어 있어서 4차 년도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7점 만점으로 변환시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만족도

일만족도는 총 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1

표 2. 일반적 만족도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임금 또는 소득
2	고용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직장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8	복리후생
9	전반적 만족도

점-매우 만족, 5점-매우 불만족)로 측정되었다.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각 문항은 역채점하여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차 년도에서는 일 만족도 항목에 '성과에 대한 인정'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 시점간의 동일한 비교를 위해 그 문항은 삭제하고 비교하였다. 문항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고,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4시점의 일반적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8~.94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으로 분석하였으며, 결측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잠재성장모형은 개별 피험자들이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되어 피험자 안에 반복 측정치들이 내재되어 있는 다층

자료 내지 위계적 자료를 분석하는 종단연구 방법이다(홍세희, 2015; Duncan & Duncan, 2004).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절편과 기울기를 잠재변인으로 두고 그 요인의 평균과 경로계수를 추정한다. 절편은 초기치 즉, 관찰시점에서의 변수의 평균값이며,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면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지, 있다면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성장모형에서 변화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모형비교를 한다. '무변화모형'은 설문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07년부터,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르기까지 변수의 평균 점수에 변화가 없이 동일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잠재변수는 초기치 변수만이 존재하고, 기울기 변수가 없다. '선형변화모형'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수의 평균점수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선형으로 나타날 것이라 추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잠재변수는 초기치 변수와 선형변화율 변수로 나타난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수의 평균 점수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곡선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잠재변수는 초기치 변수, 선형변화율 변수, 이차함수변화율 세 변수로 나타난다(홍세희, 2015).

이 연구의 분석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변화 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까지, 즉 1~4차까지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형변화 모형의 T 를 0, 1, 3, 5로 코딩하고, 이차함수변화모형에서 T^2 은 0, 1, 9, 25로 시간코딩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둘째, 결혼과 연령기간의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셋째,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의존적 모형과 시간독립적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비교에서는 χ^2 값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홍세희(2000), Hu & Bentler(1999), Browne & Cudeck(1993)이 제시한 *TLI*, *CFI*, *RMSEA*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수인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만족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모형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을 살펴보고자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 3과 첨도의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3.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2007MS	2008MS	2010MS	2012MS	2007WS	2008WS	2010WS	2012WS
1	1							
2	.361	1						
3	.301	.402	1					
4	.280	.277	.379	1				
5	.273	.211	.160	.164	1			
6	.181	.255	.166	.188	.519	1		
7	.157	.182	.200	.159	.472	.475	1	
8	.156	.166	.134	.200	.424	.460	.510	1
M	5.10	4.84	4.86	4.64	2.96	3.01	3.10	3.12
SD	1.15	1.05	1.01	1.16	.73	.67	.59	.57
왜도	-.274	-.050	-.174	-.277	.149	.085	.327	.396
첨도	-.003	.168	.370	.138	.606	.727	.572	1.002
N	1,859	1,862	1,862	1,861	1,857	1,862	1,862	1,860

주 1. MS는 결혼만족도, WS는 일만족도를 의미하며 모든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p < .01$)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 2, 3과 같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그리고 이차함수 모형간의 모형 비교를 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χ^2 검증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홍세희(2000), Hu & Bentler(1999) 그리고 Browne & Cudeck(1993)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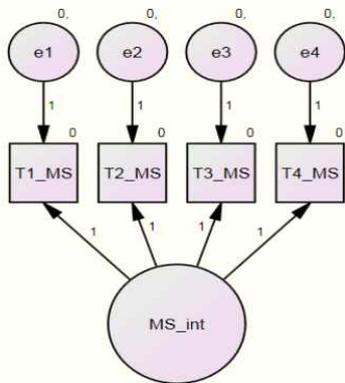


그림 1. 무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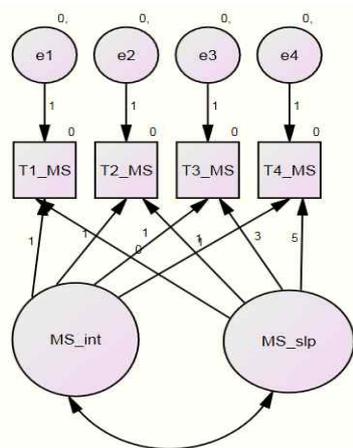


그림 2. 선형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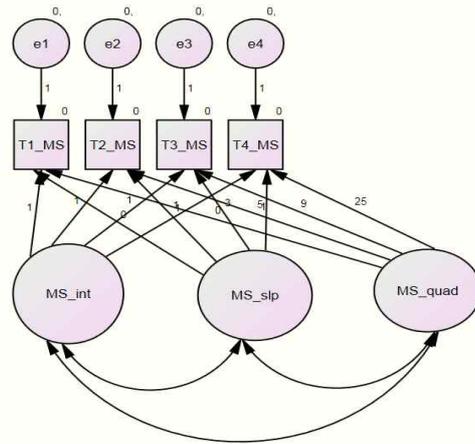


그림 3. 이차함수변화모형

제시한 *TLI*, *CFI*, *RMSEA* 기준에 의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세 모형 중 선형모형이 *TLI*, *CFI*, *RMSEA*가 .873, .936, .083으로 괜찮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선형모형을 최종 변화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각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선형모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치 평균은 5.022, 선형변화율 평균은 -.072로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산 역시 초기치, 선형변화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간의 상관은 -.299로 .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치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감소속도가 빠르고, 초기치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 감소속도는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결혼만족도의 모형별 적합도

	χ^2	<i>df</i>	<i>TLI</i>	<i>CFI</i>	<i>RMSEA(CI)</i>
무변화	231.092***	8	.725	.780	.122(.109-.136)
선형	69.694***	5	.873	.936	.083(.067-.101)
이차	58.000***	1	.438	.944	.175(.138-.215)

(*** $p < .001$, ** $p < .05$)

표 5. 결혼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 추정치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
무변화	4.860*** (.018)			.393*** (.020)		
선형	5.022*** (.022)	-.072*** (.006)		.442*** (.033)	.010*** (.003)	
이차	5.026*** (.025)	-.073*** (.020)	.000 (.004)	.497*** (.053)	.127** (.042)	.006*** (.002)

(*** $p < .001$, ** $p < .05$)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결혼만족도의 모형비교와 마찬가지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이차함수변화모형의 모형비교를 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그 결과, 세 모형 중 선형변화모형이 *TLI*, *CFI*, *RMSEA*가 .986, .993, .038로 매우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선형변화모형을 최종 변화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았으나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형변화모

표 6. 일만족도의 모형별 적합도

	χ^2	<i>df</i>	<i>TLI</i>	<i>CFI</i>	<i>RMSEA(CI)</i>
무변화	203.486***	8	.877	.902	.115(.101-.128)
선형	18.579***	5	.986	.993	.038(.021-.057)
이차	1.148	1	.999	1.000	.009(.000-.063)

(*** $p < .001$)

표 7. 일반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 추정치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	초기치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
무변화	3.060*** (.011)			.184*** (.008)		
선형	2.976*** (.015)	.031*** (.003)		.263*** (.014)	.004*** (.001)	
이차	2.955*** (.016)	.066*** (.011)	-.007*** (.002)	.284*** (.021)	.004 (.013)	.000 (.000)

(*** $p < .001$)

형을 최종 변화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각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최종모형으로 선택한 선형변화 모형을 살펴보면, 초기치 평균은 2.976, 선형변화율 평균은 .031로 .001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산도 초기치와 선형변화율 모두 유의하게 나와 초기치와 선형변화율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직장여성의 일반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580으로 .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기치 일반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족도 상승속도는 느리고, 초기치 일반족도 점수가 낮을수록 일반족도 상승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의 변화

앞에서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반족도는 상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라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반족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먼저, 연령과 결혼기간이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결혼기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모형의 기준년도인 2007년의 연령과 결혼기간을 결혼만족도 변화를 예측하는 독립변수로 넣어 Hu &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TLI*, *CFI*, *RMSEA*가 .972, .988, .061로 괜찮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연령과 결혼기간이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9에서 살펴보면, 연령이 결혼만족도의 초기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초기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결혼만족도가 점점 감소하는 상태에서 초기치 점수와 선형 변화율간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직장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기치 결혼만족도가 높고, 대신 결혼만족도 감소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혼기간은 결혼만족도의

표 8. 결혼만족도 선형변화모형에 예측변수(연령과 결혼기간)를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

χ^2	<i>df</i>	<i>TLI</i>	<i>CFI</i>	<i>RMSEA(CI)</i>
70.355	9	.972	.988	.061(.048-.074)

표 9. 연령과 결혼기간이 결혼만족도 초기치와 선형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연령	초기치	-.024***	.007	-.327
	선형변화율	.002	.002	.158
결혼기간	초기치	.002	.380	.037
	선형변화율	.000	.139	.024

(*** $p < .001$)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연령과 결혼기간이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의 선형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과 결혼기간이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 변화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연령과 결혼기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TLI*, *CFI*, *RMSEA*가 .993, .997, .034로 매우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주었다.

연령과 결혼기간이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11에서 살펴보면, 연령은 일만족도의 초기치에 주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결혼기간이 일만족도의 초기치에 주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

표 10. 일만족도 선형변화모형에 예측변수(연령과 결혼기간)를 투입한 모형의 적합도

χ^2	<i>df</i>	<i>TLI</i>	<i>CFI</i>	<i>RMSEA(CI)</i>
28.168	9	.993	.997	.034(.020-.048)

표 11. 연령과 결혼기간이 일만족도 초기치와 선형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연령	초기치	-.006	.004	-.115
	선형변화율	.002**	.001	.292
결혼기간	초기치	-.017***	.004	-.373
	선형변화율	.000	.001	-.063

(*** $p < .001$, ** $p < .05$)

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일반족도의 초기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일반족도가 점점 상승하는 상태에서 초기치와 선형변화율간의 상관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직장여성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초기치 일반족도가 높고, 대신 일반족도 상승속도는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일반족도의 선형변화율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11). 일반족도의 변화율이 정적으로 상승하는 상태에서 연령과 선형변화율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족도의 상승속도가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혼기간과 일반족도의 선형변화율과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기혼직장여성의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기혼직장여성의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의존적인지, 시간독립적인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의존적이라 하는 것은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독립적이라는 것은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일반족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시간의존적인지, 시간독립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의 최종모형인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여 시간의존적모형과 시간독립적 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 5와 같다.

위 두 모형은 내재된 모형이므로 카이제곱 검증으로 모형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χ^2 검증은 표본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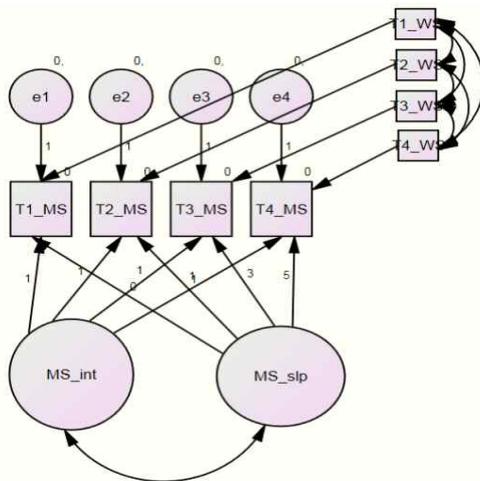


그림 4. 일반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시간의존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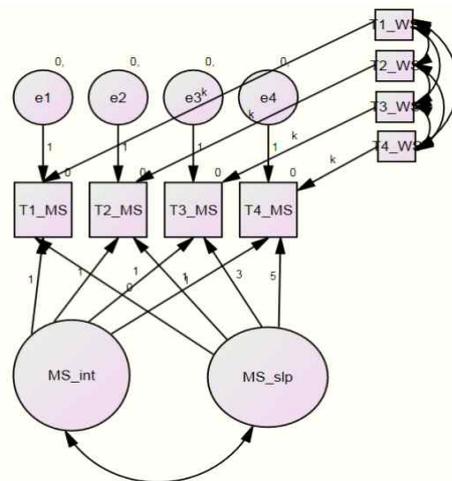


그림 5. 결혼만족도가 일반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시간독립적 모형

표 12. 일만족도의 시간의존적 효과모형과 시간독립적 효과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CI)
일 만족도의 시간의존적 효과모형	86.123	17	.956	.979	.047(.037-.057)
일 만족도의 시간독립적 효과모형	136.776	20	.936	.965	.056(.047-.065)

표 13. 시간의존적모형에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WS1 → MS1	.356***	.027	.227
WS2 → MS2	.289***	.022	.187
WS3 → MS3	.326***	.024	.192
WS4 → MS4	.297***	.037	.146

(*** $p < .001$)

표 12와 같다. χ^2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간명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 모형이 나빠진 정도가 유의미(50.653/3) 하였다. 또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아도 일만족도의 시간의존적 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의존적인 것으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만족도의 시간의존적 효과모형에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을 보면,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주는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혼직장여

성들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변화가 어떠한지 그 패턴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의존적인지 시간독립적인지,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약 75%이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사람들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해볼 때, 나이가 많으며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초기치가 의미하는 것이 결혼초기(아니라 조사를 시작한 첫 시점(2007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결혼시점(결혼초기, 중기, 말기)에 따른 만족도 변화패턴

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변화와 선형변화모형만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이차함수 변화모형까지 고려하여 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둘째,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20%가 넘고 2014년은 전년대비 2만 2천명(1.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5) 여성의 경력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현 시대적 분위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일만족도가 증가하는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결혼을 지속해 온 여성의 비율이 약 85%로 상당히 높고 결혼초기 여성의 비율이 낮다. 이것은 결혼초기에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둘 중 하나를 포기한 사람이 이미 연구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실제로 유성경, 김은석(2015)은 한국 맞벌이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시점이 입사 직후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를 그만두는 여성의 수가 점차 줄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육아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결혼초기, 그리고 새로운 업무 및 관계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입사 초기에 기혼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에 놓인 기혼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혼직장여성의 연령만이 초기치 결혼만족도 점수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기혼직장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기치 결혼만족도가 높고, 대신 결혼만족도 감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초기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김미령(2009)의 연구에서 30대가 40, 50, 60대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연령이 낮은 기혼직장여성은 시간이 갈수록 결혼만족도 감소속도도 빠르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시점에서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더 점수가 낮아지는지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박병선, 배성우(2011)의 국내 결혼만족도 종단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화패턴을 본 연구에서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연령과 결혼기간에 따른 일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혼직장여성의 연령은 일만족도의 초기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연구결과(고재문, 강순민, 2008; 문선희, 2013; Ross, 1992)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만족도의 상승속도가 빠르고 연령이 낮을수록 일만족도 상승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낮은 기혼직장여성이 나이가 많은 기혼직장여성에 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경험하는 다중역할 갈등이 심하고 그것이 일만족도 상승속도를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에 따라 일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혼직장여성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초기치 일만족도가 높고, 대신 일만족도 상승 속도는 느리게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 후 자녀출산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볼 때, 결혼초기에 일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며 갖게 되는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만족도 상승 속도는 느리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결혼만족도는 감소하지만 일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혼직장여성의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의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에 따라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끼치는 관련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에서 가정으로 가는 기혼직장여성의 긍정적 전이가 감소하거나 부정적 전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맞벌이 부부들이 일-가정 양립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상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어려움이 많아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14년의 한국, 미국, 이스라엘 비교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일-가정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한국 남편들의 지지가 유의하게 낮고 한국 여성들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et al., 2014).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기혼직장여성들을 이해할 때, 일과 가정이라는 두 역

할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으로만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Clark(2000)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여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통합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일-가족 경계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일과 가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두 영역간의 경계를 만들고, 타인과 상호작용해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이 일과 가족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각 영역에 속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 바 있다. 세 번째 가능한 해석은 Demerouti(2012)가 주장한 일에서 가정으로의 '전이'와 '교차전이'가 종단연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Demerouti(2012)는 일에서의 자원이 한 사람의 긍정적 정서와 에너지 수준을 높여 가정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이'가 일어나며 또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 배우자의 에너지 수준까지도 향상시키는 '교차전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러한 연구 결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패턴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에서 가정으로의 전이와 교차전이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그리고 다른 매개변인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초기치'가 결혼시작 시점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혼직장여성의 결혼과 일만족도의 전반적인 패턴만을 볼 수 있어, 해석의 제한이 있다. 본 연구대상의 결혼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기혼직장여성이 91명밖에 되지 않아 수집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초기점을 결혼 시작으로 맞춰 중단분석하기에는 연구대상 수가 너무 적었다. 추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결혼시작 시점 혹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혼과 일만족도 변화를 분석한다면 결혼과 일만족도 변화패턴에 대한 해석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결혼과 일만족도의 변화패턴을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연령과 결혼기간만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변화패턴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는 기혼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변인-자녀수,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육지원 정도, 남편과의 친밀도,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군, 개인내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화패턴의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끼치는 효과를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가 일에서 가정으로의 영향력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최근 가정 즉, 결혼만족도가 일만족도를 설명해주는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점(t-1)의 값이 특정 시점(t)을 설명하는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변인간의 상호지연효과를 추정하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를 통해 일만족도와 결혼

만족도 사이에 상보적 인과관계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의 성격특성이거나 부부의 친밀도, 등 제 3의 변인의 누락으로 나타난 ‘거짓효과’(spurious effect)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ole과 Maxwell (2003)의 자기회귀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중단매개효과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일만족도 값을 전반적인 만족도와 단면(facet) 만족도 값의 합을 이용하여 만족도 개념을 설명하였기에 일만족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횡단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의 전반적인 변화패턴을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가는 여성들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직장여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해결 및 상호지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들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 31-42.
- 강혜련, 윤미자 (2004). 여성관리자의 다중역할

- 몰입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 관리연구, 28, 55-85.
- 고재문, 강순민 (2008).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대학 교육연구학회논문집, 9(4), 293-314.
- 고현선 (1995).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71-83.
- 권순원, 이영지 (2010). 여성의 경력단절 결정요인과 노동시장 재진입. 숙명여자대학교 경제 연구소 논문집, 39(1), 45-57.
- 김경례 (2014). 광주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와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8, 35-50.
- 김덕일 (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미숙 (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관련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35-61.
- 김미령 (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1(2), 69-101.
- 김미정 (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선화 (2010). 부산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21, 95-131.
- 김영경 (2007).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계획과 재취업교육 요구분석 연구. 여성연구, 73, 85-118.
- 김용희, 제미경 (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1-27.
- 김임용 (1994). 현실치료집단훈련이 주부들의 자기존중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김지혜, 장연진, 김희주 (2013).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화 유형과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255-278.
- 김정옥 (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도.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 김주현, 문영주 (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희수, 김옥희 (2009). 여성의 직업 만족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2(3), 85-99.
-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 나성은 (2014).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신도구적 부성'의 구성: 맞벌이 중간계층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 1-39.
-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 (2014).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노연경, 홍세희, 이현정 (2011). 청년 취업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사 변화의 잠재계층에 대한 이중 변화형태 모형의 적용. 조사연구, 12(2), 113-144.
- 류호상, 장인봉, 염영배 (201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태분석

- 과 정책함의: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1), 51-75.
-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8, 1-316.
- 문선희 (2013). 기업복지제도가 기혼직장여성의 가정생활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친화제도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1), 119-141.
- 박병선, 배성우 (2011). 부부관계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성별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41-76.
- 박재규 (2010).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12(2), 225-252.
-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방하남 (2000).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 논집, 23(특별호), 133-154.
- 서동인 (198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강숙, 주영아 (2014). 질적분석을 통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4.
- 송말희, 이정우 (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송성자 (1995).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 송시대 (1999). 결혼생활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 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유성경, 김은석 (2015).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에 대한 영향 요인 검증-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51-569.
- 유성경, 한영주, 조윤진 (2011).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 1893-1913.
- 유영주 (1993). 신가족관계학. 경기: 교문사.
- 이상숙 (1989).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 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영민, 박가열, 박경연, 임정연 (2013). 경력단절여성 직장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한국HRD연구, 8(3), 23-43.
- 이은주 (1993).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과 활력적 결혼생활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재경, 이은아 (2003).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족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0, 39-69.
- 이정우 (1989). 보고편 - 1989년도 춘계학술대회 (주제: 사회변천과 가정) 발표: 취업여성과 가사노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7(2), 224-227.
- 이종숙 (1988). 주부의 내외통제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주일, 유 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여성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23, 472-501.
- 이호신 (2000). 결혼생활만족에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 요인들.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상담: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영란 (1991). 한국 개신교 교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23-42.
- 전춘애, 박성연 (1993). 결혼만족도와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정영금 (2006).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족 균형감과 지원용이도/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107-118.
- 정영순, 어윤경, 임유진 (2012). 취업모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전일제와 시간제 비교. 한국사회정책, 19(3), 215-245.
- 정철영, 김재호, 이성식, 한승완, 조단비 (200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운영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101-126.
- 정현숙 (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조희금 (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최영아 (1988).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최성일, 유계숙 (2007). 가족친화적 기업정책이 근로자의 일 가족 조화, 인적자원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로모형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26.
- 최지희 (1984). 결혼전후 환경이 부부관계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통계청 (2011).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 통계청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에란 (2010). 여성고용지원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여성의 경력단절요인과 재취업욕구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19, 471-508.
- 홍성희 (2000). 기혼취업여성의 취업특성과 직업만족도 영향요인: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43-156.
- 홍성희 (2000). 구조방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성희 (2015).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방법론 워크샵 교재. 서울: S&M리서치그룹.
- 홍성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기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Atchley, R. C.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D. J. Ekerdt, and B. H. Vinick (eds.) Families and Retirement, Newbury Park, Sage: 145~158.
- Andrisani, P. J. (1978).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Sigys*, 3(3), 588-607.

- Behrman, D. L. (1982). *Family and/or career plans of first-time mother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Research Press.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 781-796.
- Berry, R. E. & Williams, E. L. (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Macmillan.
- Bradbury, T. N., & R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Newbury Par, California.
- Bures, A. L., Henderson, D., Mayfield, J., Mayfield, M., & Worley, J. (1996). The effects of spousal support and gender on workers'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 cross national Investigation of dual career couple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12(1), 52-58.
- Cotton, J. L. & Tuttle, J. M. (1986). Employee Turnover: A meta-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5-70.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53, 747-77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merouti, E. (2012). The spillover and crossover of resources among partners: the role of work0self and family-self facilit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7(2), 184-195.
- Duncan, T. E., &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333-363
- Eckes, T. & Trautner, H. M. (2000).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An integrative framework. pp.3-32 in T. Eckes and H. M. Trautner (eds.). *The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gender*. Mahwah, NJ: Erlbaum.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78-199.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8(3), 430-457.
-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143-162). Washington, DC: APA.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8.
- Gilford, R. (1986). Marriage on later life. *Generations*, 10, 16-20.
- Greenberg, E. & O'Neil, R. (1993). Spous,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 family enrich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 72-92.
- Griffeth, R. W., Hom, P. W., & Gaertner, S. (2000).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employee turnover: Update, moderator tests,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next millennium. *Journal of Management*, 26(3), 463-488.
- Grzywacz, J. G., & Bass, B. L. (2003). Work, family, and mental health: Testing different models of work-family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248-261.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 Hu, L-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Iverson, R. D. & Currivan, D. B. (2003). Union participation,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 turnover: An event-history analysis of the exit-voice hypothesis. *Industrial Relations*, 42, 101-105.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7-40.
- Lavner, J. A. & Bradbury, T. N. (2010). Patterns of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Newlywed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1171-1187
- Lewis, R. A & Spanin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Locke, E. A. (1976). The nature of causes of job satisfaction. pp.1297-1350 in M.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 O'Brien, K. M., Ganginis Del Pino, H. V., Yoo, S. K., Cinamon, R. G., & Han, Y. J. (2014). Work,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Employed mothers in Israel,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61-472.
- O'Donohue, W., & Crouch, J. L. (1996). Marital therapy and gender- linked factors in commun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2, 87-110.
- O'Driscoll, M. P., Ilgen, D. R., & Hildreth, K. (1992). Time devoted to job and off-job activities, inter role conflict, and affective

- experi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272-279.
- O'Farrell, B., & Harlan, S. L. (1982). Craft workers and clerks: The effects of male co-worker hostility on women's satisfaction with non-traditional jobs. *Social Problems*, 29(3), 252-265.
- Rollins, B. & Canon, L. (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271-282.
- Ross, C. E. (1992). Education Control at Work and Job Satisfac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1, 134-148.
- Rothbard, N. P. (2001). Enriching or depleting? the dynamics of engagement in work and family ro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 655-684.
- Scanzoni, J. (1975). Sex roles, economics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402-413.
- Story, T. N., Berg, C. A., Smith, T. W., Beveridge, R. Henry, N. J. & Pearce, G. (2007). Age, Marital Satisfaction,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Positive Sentiment Override in Middle-aged and Older Married Couples. *Psychology and Aging*, 22(4), 719-727.
- 1차원고접수 : 2016.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6. 08. 29.
최종원고접수 : 2016. 09. 06.

Longitudinal Changes in Marriage and Work Satisfac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Sung-Kyung Yoo

Young-Sun L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longitudinal changes of satisfaction with marriage and work for married working women.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an & Famil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rriage satisfaction decreased with the course of time and the higher the initial score of marriage satisfaction, the faster the decreasing speed of marriage satisfaction. Second, the work satisfaction increased as time passed and the higher the initial score of work satisfaction, the slower the increasing speed of work satisfaction. Third, the younger the married working women are the higher the initial score of the marriage satisfaction is. We also found that the shorter the period of marriage, the higher the initial score of work satisfaction and the older the married working women, the faster the increasing speed of work satisfaction. Fourth, the effect of work satisfac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decreased over time. The implications on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ange of marriage satisfaction, Change of work satisfaction, Effect of work satisfac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Work-home compatibility*